

기준금리 밀도는 채권 이자율... 연내 '추가인하' 유력

(연 1.50%)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단기 채권금리 1.1%대까지 하락
한은, 0.25%p 두 번 인하하거나 0.50%p 한차례 인하 가능성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미·중 환율전쟁으로 격화되면서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영향까지 미치며 채권 가격이 급등(채권금리 하락)하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단기채 금리는 10bp 넘게(1bp=0.01%포인트) 빠졌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채권금리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음에도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연내 기준금리가 한, 두 차례 더 내릴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똑똑 빠지는 장단기 채권금리

11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전해진 지난 2일부터 채권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하

(최근 채권금리 추이)

날짜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8월 2일	1.260%	1.290%	1.349%	1.341%
5일	1.172%	1.194%	1.253%	1.259%
6일	1.163%	1.184%	1.256%	1.254%
7일	1.153%	1.181%	1.251%	1.242%
8일	1.165%	1.202%	1.270%	1.255%
9일	1.186%	1.225%	1.286%	1.271%

/자료=금융투자협회

락한 지난 7일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60%에서 1.153%로 0.107%포인트 하락했다. 5년물도 1.290%에서 1.181%로 0.109%포인트 내렸다. 단기채 금리가 1.1%대까지 하락한 것은 사상 최하다. 같은 기간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1.349%에서 1.251%로, 1.341%에서 1.242%로 0.09%포인트, 0.099%포인트씩 하락했다. 단기채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채 금리도 10bp 가까이 빠진 것이다.

채권금리가 급락한 데에는 미·중 환율전쟁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코스피·코스닥지수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던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 5일에는 단기채 금리보다 장기채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면서 금리 스프레드가 10bp 미만으로 좁혀지기도 했다.

지난 5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253%로 전일보다 0.096%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년 중 가장 큰 낙폭이다. 3년물 금리는 1.172%로 0.088%포인트 떨어졌다. 이로 인해 3년물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8.1bp 차로 좁혀졌다. 이는 2008년 8월 13일(8bp)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만 해도 장단기 금리차는 20bp 차를 유지했다.

금리 스프레드 축소는 통상 경기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국고채는 통상적으로 장기채 수익률이 더 높다. 장기간 투자하는 만큼 그 시간에 이득을 더 취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기적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기대감이 떨어지고 장기채에 대한 수요보다 단기물 수요가 늘게 된다.

◆ 강해진 추가 금리인하 압박

채권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으나 기준금리와 국고채 간 금리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채권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인 1.50%를 밑돌고 있다. 지난 9일 마감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86%로 기준금리인 1.50%보다 31bp 낮은 수준이다. 5년물, 10년물, 20년물도 현 기준금리보다 27bp, 21bp, 22bp씩 낮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0.25%포인트씩 두 차례 또는 0.50%포인트 한 차례 인하로 역대 최저인 1.25%보다 낮은 1.0%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은 내부에서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한은이 지난 6일 공개한 '2019년도 제13차(7월1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시점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만으로 경기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주열 총재도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조용구,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7월 의사록을 통해 살펴보면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인하 소수의견이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하방압력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여 10월 인하는 확실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신한금융, 중기·벤처지원... IB체계 개편

금투리테일채널 93곳 IB금융 확대 리테일점포 8곳으로... 전문성 강화

신한금융그룹이 IB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벤처 혁신기업에 대한 IB금융지원을 강화하고, IB연계 협업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5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및 기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 신한은행 기업금융지점에 신한금융투자 IB전문가를 배치하는 '신한창조금융플라자'를 운영해 왔다.

신한금융은 11일 더 많은 비상장 중



조용병 신한금융투자 회장.

/신한지주

소·중견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IB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투리테일채널 93곳을 IB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한창조금융플라자는 '신한금융IB

플라자'로 개편한다. 금투 리테일점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점은 통합(기존 14개소→8개소)하고, IB전문인력을 추가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따라 허브(Hub·신한금융IB플라자)& 스포크(Spoke·금투리테일채널) 방식으로 은행, 생명, 캐피탈과의 원 신한(One Shinhan) 협업체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금투리테일채널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발행이 어려운 비상장회사나 혁신 벤처기업에게 자산담보부 대출(ABL)이나 금전채권신탁, 개인투자조합 등 다양한 대안상품을 활용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i@

우미건설, 하반기 3개 단지 2459가구 공급

인천서구 '루원시티' 총 1512가구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 527가구

우미건설은 올 하반기에 3개 단지 2459가구(오피스텔 100가구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 인천 서구 루원시티도 시개발사업지구에서 아파트 1412가구, 오피스텔 100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실내수영장이 설치되며 모든 단지가 남향으로 배치된다. 인천지하철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에 인접해 있고 7호선 연장선 석남역(2020년 개통 예정)과도 가깝다. 단지 내 2만여㎡ 규모의 테마형 스트리트몰인 엘리스빌도 함께 공급된다.

오는 10월에는 고양 삼송에서는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 527가구를 선보인다. 각 가구 간 독립성을 보장받는 3층 이상의 다층(일부 가구 제외) 주택이



김단신도시 우미 린 더퍼스트 조감도.

다. 서울과 가깝고 지하철3호선 삼송역 인근으로 교통 편의성을 누리면서 놓인 오금천과 오금공원, 북한산 조망(일부 가구) 등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11월에는 위례신도시 A3-2블록에서 '우미린2차' 420가구를 공급한다.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 5월 위례신도시 우미린1차를 공급해 43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인근으로 청량산과 남한산성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NAVER 하반기 핀테크 시장 격돌 KakaoTALK

매출 20% 늘고 영업이익 49% 줄어 "금융사업 강화, 신규모멘텀 될 것"

증권가에서 하반기 유망주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주(株)가 추천되는 가운데 인터넷 대표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하반기에 핀테크 시장서 본격적인 격돌이 예상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네이버와 시장 기대를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한 카카오는 희비가 교차했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에서 사내독립기업인 네이버페이를 11월에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분사한다는 계

획을 밝혔다. 특히 이 회사에 현재 전략적인 협력 관계인 미래에셋대우에서 5000억원 이상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최인혁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분사를 기점으로 금융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네이버가 은행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출·보험 등 신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네이버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어난 1조 630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8.8%가 감소한 1283억원을 기록해 시장에 우려를 안겼다. 하지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핀테크 등 금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강력한 신규 모

매출·영업익 각각 24%·47% 증가 "카뱅 최대주주 전환, 시너지 기대"

멘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성진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네이버파이낸셜 설립은 커머스 기반의 금융 플랫폼이란 특화된 경쟁력을 통해 본격적인 금융 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기업가치를 더욱 확대해주는 요인"이라며 "향후 일본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마케팅 집행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카카오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405억원을 기록해 시장 컨센서스를 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채윤정 기자 echo@

주식형펀드 약세 속 '금·채권' 약진

주간펀드동향

KRX, 코스피지수 4.79% 하락

한 주간 전 세계 통화가 요동치며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모든 유형의 주식형펀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과 채권 관련 펀드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8월2일~8일)간 전주 대비 4.79% 하락한 1920.61포인트로 마감했다. 日 수출보복, 미·중 무역분

쟁이 고조되며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불안감에 5일 연속 2000선을 하회하며 연저점을 경신했다. 해당기간 국내주식형펀드는 5.37% 내렸다. 인덱스 유형에서 874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순자산은 2조105억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채권형펀드의 자금유입세는 계속됐다. 국내채권형은 1566억원의 자금이 들어왔고, 주요국 금리인하가 단행된 것의 영향으로 해외채권형 또한 2468억원의 자금유입을 기록했다. 두 펀드 각각 0.26%, 0.32% 수익을 올렸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